

장소별 물놀이 안전수칙



"주간 안전 신호등 ●"

최근 3년간 바닷가 안전사고 분석결과, 전체 사망자 390명 중 6~8월 사망자가 42%(164명)으로 나타났다. 여름철 바다, 계곡, 워터파크 등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주의하자.

— 출처 : 대한안전교육협회(2018) —

"알아두면 좋은 안전교육자료"

◆ 바다

- 준비운동 하고, 수영하기
- 몸에 물 적시기(심장 먼 곳 부터)
- 수심이 깊은 곳은 가지 않기
- 식사 후 30분 뒤 물에 들어가기
- 이안류 조심하기

◆ 계곡

- 준비운동 하고, 입수하기
- 입수 전 막대기로 수심 확인하기
- 다이빙 하지 않기
- 일기예보 확인 - 갑자기 물 깊어짐
- 물 속 미끄럼 조심하기

◆ 워터파크

- 준비운동 하고, 물놀이하기
- 물놀이 이용규칙 확인하기
- 파도 풀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
- 미끄러운 바닥, 계단 조심하기
- 맨발 보다, 신발을 착용하기

◆ 이안류?

- 파도가 쳐, 먼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는 파도를 말한다.

"해류가 끝나는 지점에서 헤엄쳐 나와야 하고, 해안가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나오거나, 대형 튜브 등을 붙잡고 떠 있어야 한다."



*전북안전 매뉴얼(앱)에서 '여름철, 물놀이' 를 검색하여 동영상으로 배워요.

"이야기 해봐요"

바닷가 물놀이를 갔다가, 친구가 이안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답 예시) 먼저, '도와주세요'라고 큰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알린다.
다음은 119 또는 바닷가 안전요원에게 신속히 신고한다.
그리고 친구에게 주변에 큰 튜브나, 공 등을 던져주어 잡을 수 있도록 한다.
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안류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, 주의해야 한다.